

꽃을 보려면

정 해 현

(시인, 창릉동주민자치회 부회장)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시간

다가가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

마침내

마주 웃는 시간

그리고

함께 새소리 듣는 시간



[사진] 박용무(朴用武) : 사진작가, 1946년생, 명동·을지로 사진교실 지도교수



고양시 첫 관문, 용머리 마을

창릉동자치신문

2022. 겨울호(통권 제7호)

창릉동주민자치회
전략체계

2022년 사업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창릉동 명소 탐방 및
지명 이야기

우리 마을 역사
바로 알기



임 현 철

창릉동주민자치회 회장

우리 마을 창릉동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양특례시에는 모두 44개의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을 창릉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업력을 보면 전체 44개 동 중 37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고, 5개 동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창릉동과 풍산동주민자치회 2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고양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자치회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계획한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이 주어진 부분입니다. 자치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신문을 발간하거나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독서 동아리 사업 등을 전개하는 것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22년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바쁘게 뛰었습니다.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창릉동 독서동아리 운영, 매실장아찌 담그기, 우리 고장 문화유산 돌아보기,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 마을꿈☆주민자치대학 개설,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 창

릉동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창릉동 주민총회, 창릉동 용머리 마을축제, 고양 밥할머니 추향제, 반려견 에티켓 세미나,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 추진, 그리고 밥할머니 지혜로 조성 및 걷기 대회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창릉동주민자치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격의 없는 응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영 동장님을 비롯한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분들의 협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릉동 통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사회보장협의체,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체육회 등 직능단체 간의 상호 협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물론, 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마을신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4,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우리 창릉동은 용두동과 동산동이 함께하는 전통적인 도농복합마을이며, 문화유산 서오릉과 밥할머니 석상, 그리고 스타필드가 있는 복합문화 마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창릉천과 남쪽으로는 앵봉산이 자리하고 있는 자연친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들의 정주여의도가 높아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릉동주민자치회는 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병 영

창릉동 동장

주민이 직접 참여·기획·실행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창릉동장 이병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줄 일곱 번째 마을신문의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과 변화를 추구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임현철 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자치회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창릉동 주민총회, 무궁화나무 심기,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 개최,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반려견 에티켓 실천 행사(떡구이·밥할머니 뽀러가자!), 마을 역사 해설사 양성 과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마을 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랜만에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는 진정한 주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마을축제추진위원회와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창릉동은 세계문화유산 서오릉, 향토문화재인 고양밥할머니 석상과 아름다운 공원이 많은 자랑스러운 동네입니다.

모쪼록 따뜻하고 살기좋은 창릉동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기획·실행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신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릉동은 법정동인 용두동과 동산동이 합쳐진 행정동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이 공생하는 도농복합 마을



> 10,510 세대
> 23,976명(남 11,832명, 여 12,144명)
> 11.57Km²(고양특례시의 4.4%)
> 23통 167반
(2022년 12월 15일 기준)

고양특례시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마을 창릉동은 법정동인 용두동과 동산동이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고양시 첫 관문, 용머리 마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가 다섯 배 이상 급증해 현재 우리 창릉동에는 24,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0대 중심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30대 중심의 사무 전문직, 서비스 업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교에 이르는 만큼 젊은 가정의 이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타필드 고양점에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관계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의 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창릉동 주요시설

학 교	동산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창릉초등학교, 동산고등학교
공공시설	동행복지센터, 도서관, 반려견놀이터, 수질복원센터, 밥할머니보존회 등
문 화 재	서오름, 밥할머니석상, 동산동 비석군, 명숙공주묘, 이군생묘 등
체육시설	운동장,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금융기관	신도농협(동산지점, 동산마을지점, 용두지점, 하나로마트점) 기업은행 테크노밸리지점, 우리은행 MBN지점
기 업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지역난방공사, 테크노밸리, 123골프장 등
기 타	전래놀이터, 버스킹공연장, 아트홀, 영화관, 갤러리 등

10년 간 인구증가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인구	9,664	10,637	11,688	12,474	13,195	14,737	19,582	21,035	23,536	23,976
0~9세	1,078	1,231	1,427	1,582	1,676	1,771	2,404	2,569	2,743	2,741
10대	932	969	1,056	1,113	1,198	1,286	1,494	1,513	1,708	1,835
20대	1,129	1,226	1,361	1,391	1,396	1,625	2,285	2,371	2,485	2,370
30대	1,779	1,868	2,025	2,122	2,218	2,657	4,392	4,668	5,489	5,463
40대	1,633	1,703	1,932	2,086	2,306	2,544	3,432	3,641	4,154	4,311
50대	1,732	1,822	1,821	1,877	1,938	2,122	2,510	2,649	2,978	3,105
60대	614	1,002	1,185	1,335	1,424	1,553	1,913	2,095	2,373	2,443
70대~	767	816	881	968	1,039	1,179	1,422	1,529	1,606	1,708

고양시 첫 관문 용머리 마을

창릉동

우리 마을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창릉천 쪽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스타필드가 개장되면서 도농(都農)복합 마을로 변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생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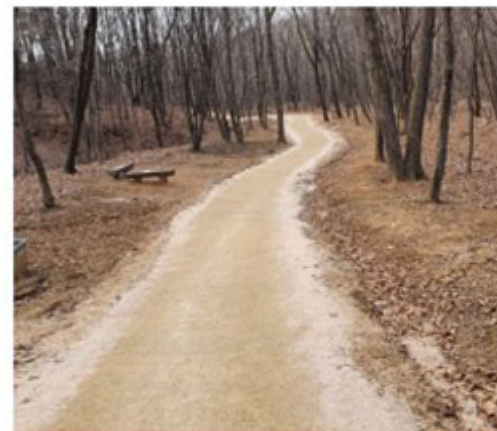


▲ 동산꽃밭이공원



▲ 밥할머니 연못

우리 마을 창릉동에는
보물과도 같은 명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마음먹고
한 바퀴를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정겨운 곳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많은
이야깃거리가 생성될 것입니다.



▲ 서오릉 서어나무길



▲ 앵봉산 전망대



▲ 용두동 화원거리



▲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 파크골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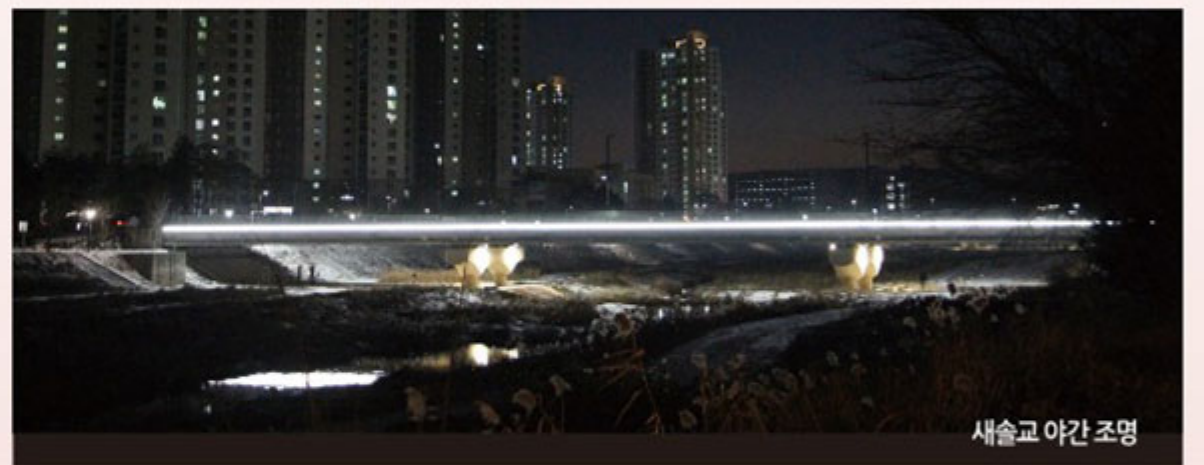


▲ 별궁(밥할머니)도서관



새솔 다리에서의 노을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해 우리 마을을 지나 방화대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22Km의 지방하천입니다. 우리 창릉동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나는 창릉천 산책로에는 어떠한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솔교 야간 조명



동송교 버스킹 공연장 객석



밥할머니 전래놀이터



샛말천 비단잉어



창릉천 징검다리



창릉천 안내표지

“

창릉동(昌陵洞)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안에 있는 조선전기의 왕릉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습니다. 창릉에는 조선조 제 8대 예종대왕과 그의 비인 안순왕후 한씨의 무덤으로 서오릉에서 가장 오래된 왕릉으로 유명합니다. 이 왕릉의 이름을 따서 창릉동에 흐르는 하천의 이름을 창릉천으로 정했고 동의 명칭도 창릉동으로 삼았습니다.

[사진] 김중원(창릉동주민자치회 마을발전분과 위원장)
[자료] 정동일(고양시 역사문화재 위원)

”



용현마을 용두동과 동산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용두동으로 가는 고개(용고개)라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왕산 용두초교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왕릉의 지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유래는 현재까지 알 수 없습니다.



큰골입구 창릉 모퉁이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동산동의 여러 마을 중에서 골짜기가 크고 넓다고 해 붙여진 자연촌락 이름입니다. 골짜기에서는 앵봉(매봉)에서 시작된 개울이 창릉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마을의 집들도 산골짜기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용사촌 동산동 중촌에 해당하는 마을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용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앵봉(매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운하리 용두동에 속한 지명으로 만월산 기슭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어 구름과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해 붙여진 지명이라 합니다.



능말 서오릉 앞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왕릉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산동(東山洞) 삼송동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으로 고양군청이 고양동에 소재할 당시, 마을의 위치가 동쪽에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릉 모퉁이 동산동의 윗말에 해당하는 곳으로 창릉으로 가는 길의 모퉁이 (모서리)에서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 모퉁이 마을 이라고 표기한 안내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제공] 정동일(고양시 역사문화재 위원, 향토사학자)



벌말입구 용두동에 있는 자연촌락이름으로 벌판 쪽에 새로 생긴 마을 이라고 해 붙여진 마을 이름입니다.

용두동(龍頭洞) 서오릉이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봉수자리 상 용의 머리, 즉 용머리에 해당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용을 상징하는 왕의 무덤이 이곳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마루 동산동에서 용두동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지명으로 멀리 창릉천의 동쪽이 보이는 마루터기(언덕)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릉(昌陵)에서 유래한 창릉동

서오릉에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의 창릉이 첫 왕릉으로 조성되면서 덕수천이 창릉천으로 명칭변경되었고 후대에 창릉동이라는 지명도 생겼다. 신도읍 동산리와 용두리 그리고 삼송리의 일부가 속하게 창릉동에는 능모퉁이, 비석거리상이용사촌, 용달말, 도당대, 장터거리, 방아다리, 격정머리, 정릉천, 벌고개, 우묵골, 성황당고개, 능말 등의 자연부락이 있던 곳이다.

서오릉 매표소에 들어서서 답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속종의 명릉과 속종의 원비인 인경왕후의릉인 익릉을 볼 수 있다.

이어 서오릉에 제일 먼저 조성되었던 예종의 형님 의경세자의 정릉이 나온다.

처음 '의묘'로 만들어졌다가 이후 둘째 아들이 성종이 되자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묘가 정릉으로 승격되었다.

정릉을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도세자의 부친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홍릉이 나온다. 정성왕후의 옆에 묻히고 싶었던 영조가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두었지만 그 뜻은 이뤄지지 못해 홍릉은 오른쪽이 바어있는 우허재릉으로 남아있다. 홍릉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릉이 나온다. 동원이창릉으로 정자가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서쪽)이 예종, 오른쪽 언덕(동쪽)이 안순왕후의 능이다. 형인 의경세자와 12살 차이이며, 의경세자가 20세에 사망하자 8세의 나이에 왕세자가 되었고 19살에 세조의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고 즉위 다음날 부친 세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즉위한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형 의경세자처럼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예종은 1450년에 태어나 11살에 한명회의 딸 한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해 이듬해에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세자빈 한씨가 죽고, 인성대군도 3살 때 중풍으로 죽었다. 삼년상을 마친 후 한백륜의 딸 한씨가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즉위 후 왕비로 책봉된 안순왕후는 예종보다 30년을 더 살고 예종 곁으로 갔다. 예종의 죽음은 암시하듯 새벽에 까치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자로 이름난 예종은 세자시절 세조가 병환이 생기니 수라상을 보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며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한잠도 못 잤고, 즉위후 하루만에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이 지나쳐 마침내 건강을 해치게 되어 이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예종은 패륜을 저지른 아버지 세조의 묘호를 할아버지 세종보다 더 높은 의미를 담은 '세조'로 올리며 찬양했다고 한다.

[글] 이옥석(고양신문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충효(忠孝) 배우며
산책하기 좋은 명소

서오릉(西五陵)은 고양시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왕릉을 일컫는 곳으로 우리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오릉은 세계 문화유산이자 사적 198호로 지정된 역사 문화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조선왕릉 중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東九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선왕실 무덤입니다.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추존 덕종)와 소혜
왕후 한씨가 묻혀 있는 경릉(敬陵), 8대 임금 예종과 안순왕후 한
씨가 묻혀 있는 창릉(昌陵), 19대 임금 숙종과 인현왕후 민씨, 인
원왕후 김씨가 묻혀 있는 명릉(明陵),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 김
씨가 묻혀 있는 익릉(翼陵), 21대 임금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 서
씨가 묻혀 있는 흥릉(興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대 임금 명종의 아들 순희세자와 공혜빈 윤씨가 묻혀 있는 순창원(順昌園).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가 묻혀 있

는 수경원(綏慶園)이 있으며, 사극의 단골소재로 자주 나오는 장희비의 무덤인 대빈묘(大嬪墓)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이름이 다른 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품격에 따라 무덤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陵)이라 하고, 왕의 생모, 왕세자, 빈의 무덤은 원(園)이라 하며, 대군, 공주의 무덤은 묘(墓)라 합니다.

서오릉은 계절 마다 특색 있는 산책 코스를 제공합니다. 정문에서 명릉, 순창원 정릉, 대변로를 둘러보고 창릉까지 갔다가 다시 서어나무길로 익곡, 수정원을 거쳐 정문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쉬엄쉬엄 편안한 걸음으로 두 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일일 산책 코스로 이만한 데도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참여와 나눔을 실천한 임진왜란 때 여성의병장
매년 10월 밥할머니 추향제 지내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밥할머니 공원에 위치한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인근에 있는 동산동 비석군과 함께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향토문화재 제46호인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 서울 북서부 지역과 고양 일대에서 활약한 해주씨 여성들의 병장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상으로, 독특성, 희귀성, 역사성에 있어 뛰어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양 밥할머니 석상은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일제 때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주대첩 때 밥할머니에게 닮았던 양강읍이었고, 민중의 봉기를 우려한 일본이 이를 차단하려 만행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해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입니다. 손 모양의 경우 오른 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악함을 바치고 있습니다. 입상으로 추정되는데, 무릅 아래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원형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조선조 중기 약사보살상의 모습으로 세워진 법할머니 석상은 고양지역 유일한 석상입니다. 여성의병장 법할머니 석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지혜와 용기, 참어와 나눔을 실천한

법합머니를 기리기 위해 국가의 배려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할머니공원에서는 매년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법할머니의 시대정신을 기리는 추향제례(추향제례)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0월 14일에 제19회 추향제례를 봉행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 동북쪽에는 향토문화제 제47호인 동산동 비석
 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양시 향토사 연구에 매우 중
 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제 제47호인 비석
 군은 당시 경기관찰사 오정일 공의 청덕홍민선정비(淸德恤民善政
 碑)와 고양지역 주민들이 헌신한 덕수자씨교비명(高陽德水慈氏
 橋碑銘), 그리고 고양군수 엄찬의 공적비(高陽郡守嚴贊功德碑)입
 니다.

2020년 7월 밥할머니공원 내에 예쁜 연못이 조성되면서 창릉동 주민들은 연못 내에 비단잉어를 방생하고, 연못 주변으로는 과일나무와 무궁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로 인해 밥할머니 석상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동산동을 한바퀴 도는 4.5Km 길이의 '밥할머니 지혜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인근 버스정류장 이름도 밥할머니공원앞으로 변경되었고, 삼송역 3번출구 쪽에는 밥할머니 석상을 알리는 안내문도 설치되었습니다.

[글] 정한선(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장)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마을 창릉동에 모두 세 개 코스의 산책로를 개발했습니다. 제1코스는 밥할머니공원을 출발해 동산동 마을을 휘감는 4.5Km 구간의 마을길이며, '밥할머니 지혜路'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2코스는 창릉동 운동장 쪽에서 시작해 큰골 쪽으로 내려오는 5Km 길이의 산길이며, '앵봉산 얼레길'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레'는 연실은 감는 도구인데, '동산동과 용두동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3코스는 용두동 봉산에 만들어진 2.4Km의 산길이며, '봉산 새소리길'이란 이름을 붙였고, 마을주민들이 이길에 새집을 달아 놓았습니다.

[구성] 동인해 위원(밥할머니 지혜로), 손병규 위원(앵봉산 얼레길), 정해현 부회장(봉산 새소리길)

제1코스

밥할머니 지혜路

**'밥할머니 지혜로를 걸으면
좋은 생각이 쑥쑥!'**

밥할머니공원-스타필드-동산고-스타빌리지-창릉천 독길-
셋말천을 가르는 4.5Km 마을길



제2코스

앵봉산 얼레길

**동산동과 용두동을 잇는
해발 235.7m 마을 산**

연실을 감는 '얼레'에서 이름 따 '앵봉산 얼레길'로
명명한 5Km 산길



제3코스

봉산 새소리길

**창릉주민자치회와 서오릉상친회
합동으로 새집 달기**

검문소-주말농장 쉼터-육천약수-간이쉼터-금륜사-
검문소를 잇는 2.4Km 산길



2016년 7월 주민자치회로 승격

4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5개 분과, 2개 별정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창릉동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창릉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으며,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입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12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해 2016년에 풍산동과 함께 주민자치회로 승격했습니다. 고양시 총 44동 중 5개동은 2020년에 주민자치회로 승격했고, 나머지 37개동은 올해 초 모두 주민자치회로 승격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며, 주민자치회에는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어 자체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60여 과정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면서 비전으로 '온고지신으로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미션으로는 '3C 숨씨' 구조로는 '만남시다! 느낌시다! 나눔시다!'로 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에는 '옛것을 익혀 새롭게 하자' 뜻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션인 '3C 숨씨'에는 소통(Communication), 변화(Change), 배려(Consideration)에서 3C를 따고, 이를 '숨씨' 있게 잘 꾸리자'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먼저 과제 발굴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과제로 채택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체계 구축과 업무분장을 하며 사업을 완결한 후에는 평가 작업을 통해 피드백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과 5개의 분과위원회(주민소통, 행복나눔, 미래참여, 마을발전, 환경안전)와 2개의 별정조직(밥할머니교육원, 용머리산악회)에서 모두 4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 전략체계도



Vision

溫故知新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온 고 지 신

Mission

3C 숨씨

Communication 소통

만남시다!

계층간 공감 플러스
용머리 축제 계승

Change 변화

느낌시다!

마을역사 바로 알리기
미래 동량 참여 확대

Consideration 배려

나눔시다!

밥할머니 정신 보급
행복 나눔 사업화

Action

과제발굴
조사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수립

협의체
구축

업무분장
시행

평가
피드백

주민자치회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자치계획의 구성

자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등 공모사업
수탁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
참여형예산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계획은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의 연간사업 계획을 말합니다.

주민자치의 꽃, 주민총회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자치계획을 살펴보고, 토론하며 직접투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마을계획을 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09개 상가 주택으로 형성된 스타빌리지

우리동네소개



스타빌리지는 창릉동행정복지센터 서남단에 위치한 상가주택마을의 이름입니다. 동쪽에 고양동산고가 있고, 북쪽에 동산마을 21단지과 24단지가 있습니다. 109개의 상가주택과 5개의 대형 상가가 넓고 푸르른 공원과 어우러져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마을입니다. 공원을 둘러 유명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다수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300여 명까지 수용가능한 대형유치원과 중앙공원의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스타빌리지는 다수의 아파트단지 대비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소음과 매연에 피해가 덜 하고 고층 건물이 없어 시야가 탁 트인 마을입니다. 스타빌리지는 1층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동산한울타리상인회'가 있습니다. 동산한울타리상인회는 2019년 30여 명의 상인들로 조직되어 2022년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상인회원들은 대형 상권으로 물리는 고객들을 스타빌리지로 유입하기 위해 홍보, 봉사, 견학, 교육, 회의 등 지역사회공헌과 마을을 위해 간판으로 불을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방문고객에게 마스크 제공, 손 소독 티슈 및 각종 사은품 제공, 해충을 없애기 위한 포충기 설치 등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4년 간 여러 이벤트를 해 온 결과 실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장에서 매출상승을 보였고, 어려운 시대에 상인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겨내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글] 한주희(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 스타빌리지 부회장)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22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생태민주주의 강좌까지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전년도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고양시 지방 보조금 등을 사용해 전개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주민자치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정리 신두순(창릉동주민자치회 사무국장)]

4.2토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심기

“보물과도 같은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를 심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에서는 지난봄 밥할머니공원에 무궁화나무 225그루를 심었습니다. 큰 나무 25그루는 밥할머니 석상 주변에 심었고, 작은 나무 200그루는 운동기구·테크노벨리·동산고가도로 쪽 세 곳에 나누어 밀식을 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가뭄이 심했던 봄·여름 내내 위원들이 물주기에 나선 결과 우아한 무궁화 꽃을 주민들께 선보일 수 있었고, 무궁화나무를 심는 작업에 창릉동 다둥이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수고해 주었습니다.



5월11일수, 11.30수

밥할머니지혜로 글자 간판 설치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해 밥할머니 지혜로 발굴 및 안내판 설치에 이어서 올해에는 ‘밥할머니 지혜로’ 일곱 글자 간판과 건강 걷기 설명판을 설치했고, 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매설작업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 수고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4.5Km 구간에 이르는 밥할머니 지혜로 설치물은 이제 모두 자리했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 11.23일(수)에는 밥할머니 지혜로 걷기대회 행사를 가졌고, 밥할머니의 시대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하고 매설한 밥할머니 지혜로 글자 간판은 창릉동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6.7화 ~ 10.14금

매실장아찌 담그기와 기증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여름 매실장아찌를 담그고, 숙성시켜 이들 마을 어르신 및 결손 가정에게 기증하는 보람된 일을 수행했습니다. 6월 7일 전남 광양군 다압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 결연식을 가지면서 좋은 매실을 구입했고, 이를 설상에 절여 약 3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 9월 7일 프라스틱 병에 소분해 담았다가 10월 14일 밥할머니 추향제 장소에서 창릉동 사회보장협의체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실장아찌 배분은 사회보장협의체가 맡아서 했습니다. 매실장아찌 담그기는 현미수 부회장(현 감사), 조미숙 위원, 조난영 위원이 수고 했습니다.



6.8수 ~ 10.5수

마을꿈★주민자치대학 개설 및 운영

올해 초 고양시 44개동 모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되었습니다만,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7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37개동이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릉동주민자치회는 6년간의 운영 경험을 수평전개 하고자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마을꿈★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고 총11강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례발표 6강, 대담회 2강, 워크숍 및 벤치마킹 연수, 특강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현 주민자치회장들이 강사로 나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6.21화 ~ 11.14화

창릉동 독서모임 운영

현재 창릉동에는 2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창릉동으로 이사를 온 지 5년도 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웃 간에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주민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한 결함을 위하여 ‘창릉동 독서모임’을 만들고, 총 3기수 25명을 배출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별곡도서관(밥할머니도서관) 커뮤니티룸에서 기수 당 네 번씩 회합을 가졌는데, 구자란 선생이 독서모임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월)에는 임성미 작가를 초대해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6.23목 ~ 9.15목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 운영

창릉동주민자치회 주민소통분과위원회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제1강은 권기봉 작가의 ‘마을을 걷다’, 제2강은 김성수 교수의 ‘건강과 소통’, 제3강은 김이곤 음악감독의 ‘음악과 소통’, 제4강은 김형인 연방인의 ‘전통연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일 1회씩 개최된 고품격 인문학 강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으로는 마을의 직능단체 대표, 기업 경영자 및 임원, 시·도의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7.23토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 개최

지난 7월 23일, 창릉천 동송교 아래 둔치에서 주민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창릉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결합해 ‘창릉천 환경 문화 행사’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릉천 다리 둔치 바닥 양동이 물청소를 시작으로, 황공임 행복나눔분과위원장의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시 낭송, ‘미니애포케스트라’의 오 솔레미오, 베사메 무츠, 하얀 나비, 노란서프 입은 사나이, 바이지오 등의 멋진 연주가 이어져 창릉천에 산책 나온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8.12금

우리 고장 문화유산 돌아보기 행사

우리 마을 창릉동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마을입니다. 이에 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에서는 지난여름에 우리 고장 문화유산 돌아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돌아보기는 답사여행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전용버스를 타고 밥할머니공원을 시작으로 숯돌고개, 벽계관지, 고양향교, 해음령, 명숙공주묘, 이군생묘를 둘러보는 답사 일정을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정환선 밥할머니교육원장과 구자란 문화해설사가 방문지 마다 해설자로 나서 참가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전했습니다. 이번 돌아보기는 주민과 학생 등 15명이 참가했습니다.



9.24.토

창릉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창릉동주민자치회 미래참여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토) 동산 꽃밭이 공원에서 창릉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복한 마을 창릉동'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두 182점의 작품들이 모아졌고,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고양시장상과 국회의원상, 고양시의회 의장상, 경기도 의원상, 주민자치회장상 등으로 시상했습니다. 10월 3일 '제8회 용머리 축제' 개최식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당일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0.14.금

여성의병장 고양 밥할머니 추향제 봉행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와 함께 지난 10월 14일 오전에 밥할머니공원에서 '제19회 고양 밥할머니 추향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추향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에 따라 15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김용규 고양문화원장이 초헌관, 이병영 창릉동장이 아헌관, 오홍석 해주오씨 벽성군 중증이 종헌관, 그리고 축문축관에 양정남 위원, 우집사에 동인해 위원, 좌집사에 삼기석 위원, 관육식은 조난영 위원과 김향에 위원이 수고했습니다. 추향제 사전행사 사회는 정해현 부회장, 추향제 집례는 이충구 총장사 제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10.20.화~28.금 / 11.15.화
마을 역사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교육원에서는 '제2기 마을 역사 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19명의 해설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임진왜란(벽계관 전투) 전쟁사, 행주대첩의 성공요인, 밥할머니 시대정신, 해설사 역할 체험, 경기민요 배우기 등의 실내 학습과정과 밥할머니 역사현장 답사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향후 고양밥할머니보존회와 협력해 마을 역사 해설사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양성된 해설사들은 향후 전문 과정 학습을 거쳐 밥할머니 체험학습장 강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10.30.일

덕구야, 밥할머니공원에 산책 가자!

창릉동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에 반려견 에티켓 프로그램인 '제5회 덕구야, 밥할머니공원에 산책 가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팀 간 1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워킹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모두 50팀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을 하는 동안 출발 지점에서는 명찰 달기, 이어지는 4개 코스에서는 각 5개씩의 질문과 답을 하는 스무고개 게임을 실시했으며, 종료 지점에서는 기념사진 촬영과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선생님께서 반려견 성격 진단 및 교정을 위한 상담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에 나도 한 표

창릉동 주민총회 개최, 8개의 자치계획 의제와 25개의 민원성 의제 선정

창릉동주민자치회가 지난 9월 28일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제4회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김원태 주민소통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민총회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영상 인사를 시작으로 2022년 사업 활동 보고, 주민총회 선정 의제 설명, 개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총회는 주민들이 설문지를 통해 제안한 총 350건의 의견 가운데 8개의 자치계획 의제를 사전에 선정했고, 이 중 5개의 주요 의제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창릉동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주민 2,515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창릉동 행복한 음악회(585명) ▲창릉동 어린이 UCC·그림그리기 대회(571명) ▲환경안전 에티켓 활동(560명) ▲밥할머니 역사 학습활동(439명)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공감+ (360명) 등의 마을 자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 자치사업 외에도 주민들이 제안한 25건의 민원성 의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 김원태(창릉동주민자치회 주민소통분과 위원장)

2023년도 자체계획 순위

NO	자치계획	선정이유 및 사업내용
1	창릉동 행복한 음악회	여름철 창릉천 산책길 청소와 음악회를 동시에 개최. 이에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준 높은 아티스트 초청을 위한 예산 필요
2	창릉동 어린이 UCC 및 그림그리기 대회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들의 UCC 작품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이를 시상하고, 전시하는 행사 마련. 어린이들의 애함심 고취 및 주민과의 소통역량 강화
3	환경안전 에티켓 교육	창릉천, 영봉산 산책로 환경 청소 및 안전을 위한 안내 활동과 반려견 가정의 밀도가 높은 마을의 특성을 감안해 반려견인과의 갈등 해소, 전문적인 반려견 에티켓 세미나 개최
4	밥할머니 역사 학습 활동	우리 마을의 위인이신 여성의병장 밥할머니의 참여와 나눔, 지혜와 용기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습활동으로 밥할머니 지혜로 바꾸기, 독서모임, 우리고장 문화답사 등의 사업전개
5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공감+	소통을 주제로 한 고품격의 인문학 강좌 개설과 소통의 상징인 연을 통해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를 정례화 해 마을의 시그니처 행사로 자리매김 건요
6	2023년도 제5회 주민총회	- 2019년 주민총회 : 동산초 강당 / - 2020년 주민총회 : 유튜브 중계 - 2021년 주민총회 : 유튜브 중계 / - 2022년 주민총회 : 5층 대강당
7	제9회 창릉동 용머리축제	- 제7회 : 2019. 9. 20. 동산꽃밭이공원 / - 제8회 : 2022. 10. 3. 동산꽃밭이공원 ※ 상인 중심의 먹거리장터 방식을 지향하고 주민(특히 어린이)들의 체험학습 공간 확대
8	마을신문(통권8호)	매년 11월 중 마을신문 발행을 통해 해당연도의 주민자치회 사업 활동을 소개하고 익년도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및 마을의 중요한 내용 등을 기록하는 마을 소식지 발행



"빛속에서 치러진 3년만의 축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웃음 꽃 활짝"



창릉동마을축제위원회(위원장 임현철)는 10월 3일 개천절에 '제8회 용머리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간 마을축제를 열지 못했는데,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손잡고 일어나, 날아라 창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만, 종일 비가 내리는 관계로 준비한 프로그램 일부를 주민들에게 소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였지만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해 오랜만의 마을축제를 즐겼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한모 신도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창릉동 직능단체 대표들, 그리고 이웃의 여러 주민자치회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우리 동네 마을축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용머리 마을축제는 전래놀이 체험마당, 어린이 벼룩시장, 독방 마켓, 국궁 체험, 밥할머니 지혜로 가족건강대회, 태권도 시범, 미술공연, 문화 동아리 공연, 어린이 그림 전시회, 박 터뜨리기, 전통 연과 신기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주민을 맞이했습니다.

창릉동마을축제위원회는 사전에 벼룩시장 판매자 신청, 가족건강대회 참가 신청, 전래놀이 진행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해 진정한 주민의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8회 용머리 마을축제는 동산꽃밭이공원과 창릉천 독방 등 드넓은 축제 공간을 활용해 진행했습니다.

행사의 주 무대(9.5톤 트럭 무대)에서는 창릉동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과 마술쇼, 태권도 시범, 한국무용, 발리댄스, 우크렐레, 난타, 봉기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창릉동 부녀회에서는 먹거리 코너를 운영했고, 시민안전지킴이 대원들은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주었습니다. 제8회 용머리 마을축제는 특히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행사였습니다.

[글과 사진] 김종원(창릉동주민자치회 마을발전분과 위원장)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무엇인지 보여준 하루

3년 만에 준비한 마을축제,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면서 하나하나씩 빈칸을 채워 나갔다. 특히 벼룩시장 참여 문의전화에 귀가 아플 정도였다. 국궁,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천연주방세계, 연 만들기, 오자미 놀이 등의 전래놀이, 부녀회의 맛갈스런 음식들, 이렇게 준비한다고 3개월을 뛰어다니고 회의하고 섭외하고, 그러나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장님의 결단 하에 축제가 펼쳐졌다.

많은 위원들이 빛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우려와는 달리 우산을 쓰고 몰려드는 인파, 아이와 함께 하는 벼룩시장은 준비한 90여 동의 천막이 부족했다. 한 천막에 두 팀씩을 배정하며 가슴이 벅찼다.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은 우렁찬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문화 동아리 수강생들의 공연 또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바리다매한 음식은 동이 났고, 체험 부스 여기저기 길게 늘어선 대기 줄에 나도 모르게 파이팅이 절로 나왔다. 힘들게 재조립한 박 터뜨리기, 귀여운 얼굴에 예쁜 그림 그리고 마냥 행복해 하는 어린이들, 고사리 손으로 오자미를 옮기는 어른과 아이, 그야말로 축제였다.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회장님과 이를 묵묵히 따라준 위원님들의 협조가 감동을 더 키웠다. 가을비와 땀 박진, 그리고 웃음이 밤박이 된 하루였지만 행복했다. 창릉동 주민들과 함께 나는 정겨운 축제, 격려차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10월3일 그날은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무엇인지 보여준 하루였다. 주민자치회만의 축제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한 진정한 축제였다. 빛속에 피어난 주민들의 웃음은 곧 축제의 꽃으로 남았다.

[글] 김옥선 창릉동주민자치회 부회장



모으는 정성, 나누는 즐거움

나라찬 부부 태권도장

160명 어린이들이 손수 모은 라면
560봉 기증

나라찬부부태권도장은 창릉동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지도하는 태권도장입니다. 특히, 칭찬과 사랑으로 제자들과 항상 건강한 땀방울을 흘리는 교육의 함성소리가 가득한 태권도장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12월에 오로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봉사정신 가득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작은 고사리 손에 들린 사랑 가득한 라면들과 현명하신 나라찬 부모님들의 응원 덕에 12월의 추위를 잊고 따뜻한 마음으로 뜻 깊은 기부를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창릉동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 일동 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기우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태권도장이 되는 것이 변하지 않을 목표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노력들이 모인 기쁜 일이나 라면 기부를 하는 분들과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따뜻한 꽃이 피어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박기수(나라찬부부태권도장 관장)

통장협의회

대표 : 진경선
인원 : 23명

주요임무

-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 행정정책 홍보 및 동정업무 추진 지원
-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

대표 : (부녀회) 권상숙, (지도자) 박광희
인원 : 15명

주요임무

-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봉사활동
- 경로잔치 및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추진
- 기타 지역 복지·사회·환경보전 운동 등



자율방범대

대표 : 오경열
인원 : 32명

주요임무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
-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
-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 활동 등



시민안전지킴이

대표 : 이화자
인원 : 10명

주요임무

-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생활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등



방위협의회

대표 : 김형운
인원 : 18명

주요임무

- 예비군 육성·지원 및 항방작계 훈련 지원
- 안보견학 및 안보문화캠페인 활동
- 기타 지역안보 고취 활동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대표 : 진동수
인원 : 5명

주요임무

-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정화 활동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 장미상
인원 : 15명

주요임무

- 복지대상자,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 추진
-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발굴
-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체육회

대표 : 허준강
인원 : 8명

주요임무

- 지역단위 체육 친선 경기 개최 및 운영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사업 추진
- 고양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및 참여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보장협의체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창릉동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입니다.

조직으로는 공공위원장(동장), 민간위원장, 간사(복지팀장), 서기(복지담당)와 15명의 위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보듯 지역의 사회보장을 위해 지역복지 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우리 창릉동은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랑의 연탄배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밀린 잔을 주회 제공하며 안부 묻기와 찾아가는 생신축하, 삼복 날 어르신 건강식 제공하기, 그리고 모두가 따뜻한 명절 보내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가난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과 수혜자들을 살피고 공감하는 위원님들의 사랑의 발걸음이 지금까지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창릉동의 천사 재능 기부자 등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이웃들끼리 문화를 활성화 하고, 살기 좋은 창릉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글] 장미상(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매실장아찌 기증

창릉동주민자치회는 10월 14일 고양법률복지센터가 진행된 밥할머니 공원에서 이병영 창릉동장과 임현철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담근 매실장아찌 38병을 창릉동 사회보장협의체에 기증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매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양면 다압리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매실장아찌를 담그는 작업은 창릉동주민자치회 현미수 부회장(현 감사)과 조미숙, 조난영 위원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주민자치회와 광양군 다압면주민자치위원회 긴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창릉동(현미수 부회장)과 다압면(조상현 위원장)이 마을대표로 서명해 참여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우리 마을이 도시화가 되어 동산마을 22단지 입주가 시작된지 어느새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만 해도 주변이 황량해 야간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긴요했습니다. 이에 동산마을 22단지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발적 봉사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대원들은 요일별로 조를 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들어 고양시에 '시민안전지킴이'라는 단체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통장이었던 나는 창릉동 시민안전지킴이 대장을 맡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시민안전에 앞장 서 어르신 백신 접종 봉사, 약국 마스크 배부, 마스크 쓰기 운동, 체온측정, 지원금 신청 안내,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사국에 시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 나갔습니다.

창릉동 시민안전지킴이의 평소 활동은 주당 3~4일 두 시간 이상의 활동을 통해 마을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발굴해 관계기관(안전신문고)으로 이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침하 및 공원 휴게시설 점검, 가로등 정전, 청소년 선도, 부녀자 밤길 동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운 날 공원 잔디밭에 잠들어 있는 취객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기도 하고, 자연부락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창릉동 시민안전지킴이 대원들은 무급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결코 뒤지지 않기 위해 분과토의를 통해 공부도 하고, 매뉴얼을 다듬기도 합니다. 우리 창릉동 뿐만 아니라 고양시 44개동에서 시민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600여 명의 대원들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기원합니다.

[글] 이화자(창릉동 시민안전지킴이 대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사업 옐로카펫, 버스쉼터, 수목명찰 등 많은 성과 내

매년 4~5월 경 주민 아이디어 모집,
洞 전체 3억 원 내 사업제안



고양동신초 후문 쪽 옐로카펫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히우그란지두술주)의 주도, 인구 약150만 명)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제도를 권장했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릉동은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창릉천 수목명찰 달기, 용두동 버스 쉼터 조성, 창릉동 3개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 셋말천 개나리 심기 등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을 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글] 민지현(창릉동주민자치회 위원)

2023년 1/4분기 창릉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안내



창릉동주민자치회는 2023년도에도 다양한 내용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년 동안 휴강했던 문화강좌를 지난 4월부터 다른 동보다 빠르게 개강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2개 과정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문의 02-381-9731

강좌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강의실	수강료(3개월)
방송댄스(초등1,2학년)	목	15:30-16:20	15명	3층 요가실	6만원
방송댄스(초등3-6학년)	목	16:30-17:20	15명	3층 요가실	6만원
아동미술(유치부)	화	16:00-16: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아동미술(유치부)	수	16:00-16: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아동미술(초등부)	수	17:00-17:5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포물뾰족키즈공예반A	금	16:00-16:50	15명	2층 문화강좌실3	6만원
포물뾰족키즈공예반B	금	17:00-17:50	15명	2층 문화강좌실3	6만원
어린이 주산.암산	목	14:40-15:30	10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브레인 보드게임1(7세,초등부)	월	16:10-17:00	16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브레인 보드게임2(7세,초등부)	월	17:00-17:50	16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노래교실 월요반	월	10:00-11:30	50명	5층 대강당	6만원
노래교실 화요반	화	10:00-11:30	50명	5층 대강당	6만원
바리스타과정(오전반)	금	10:00-12:00	12명	2층 문화강좌실3	6만원
바리스타과정(오후반)	금	13:00-15:00	12명	2층 문화강좌실3	6만원
스마트폰교실	화	10:00~11:3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꽃그림(보타니컬아트)	목	15:00-16:3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연필풍경드로잉	화	14:30-16:0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우쿨렐레(초급)	수	09:00-09: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우쿨렐레(중급)	수	10:00-10: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우쿨렐레(고급)	수	11:00-11: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통기타교실(중급)	목	09:30-10:30	20명	4층 강당	6만원
통기타교실(초급)	목	10:30-11:30	20명	4층 강당	6만원
통기타교실(입문)	목	11:30-12:30	20명	4층 강당	6만원
캘리그래피	목	09:30-10:40	1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한글 서예	목	11:00-12:10	1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한문 서예	수	13:00-15:00	15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강좌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강의실	수강료(3개월)
난타(초급)	금	09:30-10: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난타(중급)	금	10:30-11: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난타(작품반)	금	11:30-12:20	20명	4층 강당	6만원
댄스스포츠 롬바.차차차	월	10:00-12:00	30명	4층 강당	6만원
댄스스포츠 자이브반	금	11:30-12:50	30명	5층 대강당	4만5천원
댄스스포츠 종합반	금	13:00-15:0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라인댄스(초급)	월	09:00-09:5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라인댄스(초급)	수	09:00-09:50	25명	4층 강당	6만원
라인댄스(중급)	월	10:00-10:5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라인댄스(중급)	수	10:00-10:50	25명	4층 강당	6만원
왈츠(초급반)	월	14:00-15: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왈츠(중급반)	수	14:00-15: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월빙댄스(초급종합반)	월	15:30-17: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월빙댄스(중급종합반)	수	15:30-17:20	30명	5층 대강당	6만원
밸리댄스	목	10:00-11:50	20명	3층 요가실	6만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1)	금	13:30-15:0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2)	수	09:30-11:0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힐링요가-화	화	10:00-10:50	25명		4.5만원
하타요가-화	화	11:00-11:50	25명		4.5만원
하타요가-금	금	10:00-10:50	25명	3층 요가실	4.5만원
힐링요가-금	금	11:00-11:50	25명		4.5만원
필라테스	월,수	11:30-12:20	25명	3층 요가실	6만원
한국무용(초급반)	화	10:20-11:20	20명	4층 강당	6만원
한국무용(중급반)	화	11:30-13:00	20명	4층 강당	6만원
한국무용(장구작품반)	화	13:30-15:00	20명	4층 강당	6만원
영어(영어회화 기초)	목	10:00-11:3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영어(차근차근 기초)	목	11:30-13:00	15명	2층 문화강좌실2	6만원
원어민영어(중급반)	금	09:00-09: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영어(회화중급반)	금	10:00-10: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영어(회화초급반)	금	11:00-11: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영어(초급반)	금	12:00-12:5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중급)	월	09:30-10: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초급)	월	10:30-11: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왕초급)	월	11:30-12:2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원어민중국어회화반	화	09:30-10:30	20명	4층 문화강좌실4	6만원
컴퓨터(스마트폰 및 컴퓨터활용)	월	10:00-12:00	15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컴퓨터(사진&동영상&블로그&유투브)	수	10:00-12:00	15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컴퓨터(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월,수	16:50-17:50	15명	2층 컴퓨터실	6만원

“행복한 마을 창릉동을 열심히 그려보았어요!”

지난 9월24일에 개최한 ‘창릉동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는 ‘행복한 마을 창릉동’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산꽃밭이공원에 둘러앉아 열심히 그려 제출한 182점의 작품 중 대상(고양시장상) 2점과 최우수상(국회의원상) 2점을 소개합니다.



〈고학년부 대상〉 창릉초4 박지원



〈저학년부 대상〉 동산초2 하승후



〈고학년부 최우수상〉 동산초4 정아인



〈저학년부 최우수상〉 동산초2 이지유

창릉신도시(용두동) 이야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는
명(明)과 암(暗)이
공존합니다.”

창릉동은 동산동과 용두동이 아우러진 행정동입니다. 동산동은 최근 오피스텔 및 빌라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용두동은 머지않아 ‘창릉신도시’가 조성되어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인텔리전스 & 스마트’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릉신도시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창릉신도시는 789만㎡(239만 평)에 38,000호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12조 원에 이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7월 공사 착수, 2025년 1월 주택 분양(청약), 2027년 12월 주민이주 시작 등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을 짓는다는 그 부지를 용두동 ‘운하리’로 정했습니다. 운하리는 말 그대로 ‘구름이 모이는 마을’로 대기 흐름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혐오시설을 들이면서 이렇듯 지형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소홀한 일방적인 행정에 주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갑니다. 용두동 주민들은 ‘인구가 적어서 무시당한다.’고 속상해 합니다. 창릉동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용두동 지역 이웃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글] 진경선(창릉동동장협의회 회장)

밥알머니 이야기

참여와 나눔을 실천한 조선시대의 보기 드문 여성인인



우리 마을 창릉동은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향토문화재인 여성의병장 밥알머니 석상이 있습니다.
이번 호는 밥알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쁜 언뜻이 만들어지면서 밥알머니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나옵니다.
비단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가끔씩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밥알머니는 어떤 분?’이며, ‘왜 석상에 머리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최근 SNS상에 밥알머니에 대한 오해가 많아
밥알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답글 : 임현철(고양밥알머니보존위원회 회장)

“밥할머니공원에 가보셨나요?”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는 ‘밥할머니 석상’이 있습니다. 석상은 불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머리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밥할머니 석상은 원래 동산동 능모퉁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숯돌고개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2004년에 다시 동산동으로 이전했고, 2006년에는 밥할머니 석상과 동산동 비석군이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 제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밥할머니공원으로 이전한 해는 2013년입니다.

밥할머니공원 안에 있는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 사무실은 컨테이너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밥할머니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할머니 연못 안에는 비단잉어가 노닐고, 새들이 자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창릉동 주민들이 손수 심어놓은 과일나무와 무궁화나무가 여러 그루 자리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공원에는 평소에도 꽤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흙바닥이었던 유수지가 예쁜 연못으로 변화하면서 밥할머니공원은 이제 창릉동에 보물과도 같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밥할머니 연못 조성공사는 마을 어르신들의 발원에 의해 시작되어 2020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와 창릉동주민자치회의 관계

마을 어르신들이 연로해지시면서 밥할머니보존위원회의 활동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그 역할을 이어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창릉동주민자치회가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릉동주민자치회 회장이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 회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릉동주민자치회 조직 내에 밥할머니교육원을 신설해 밥할머니 학습활동과 선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창릉동주민자치회에서 밥할머니에 대한 업무를 맡고 나서 밥할머니 관련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구야, 밥할머니공원에 산책가자!’라는 반려견 에티켓 행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말에 개관한 ‘고양시립 별꿈도서관도’ ‘밥할머니 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용사촌 입구’ 버스정류장 간판도 ‘밥

할머니공원 앞’과 바뀌어 있고, 삼송역 3번 출구 쪽에는 ‘밥할머니 석상’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에도 밥할머니 이야기가 여러번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20년 간 밥할머니 석상을 발굴하고,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향제를 봉행하는 등 우리 사회에 밥할머니를 드러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마을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석상 보존, 공원 가꾸기, 추향제 봉행 등의 활동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면서 밥할머니의 시대정신을 학습 콘텐츠화해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밥할머니 지혜로라’는 이름의 들레길도 개발해 안내판, 포토존, 표지석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의 밥할머니 체험학습을 이끌 마을 해설사도 여러분 양성했습니다. 밥할머니의 활동과 교훈을 널리 알리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밥할머니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노작가리 쌓기, 행주치마 입기, 밥할머니 얼굴 그리기 등의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밥할머니의 시대정신은 ‘참여와 나눔’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왜군들을 물리치고, 창고를 열어 배고픈 백성들을 구휼하였다.’는 내용이 밥할머니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렇듯이 밥할머니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여와 나눔’이라는 시대정신이 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밥할머니의 나라 사랑과 애민 사상을 서사적 관점과 실천적 차원에서 정리한 시대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밥할머니께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 직접 들어가 목숨을 걸고 왜적과 싸운 분입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퇴해 북한산으로 숨어든 우리 군사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노적봉에 벼 짚단을 쌓고, 창릉천에 헛가루를 뿌려 왜군을 격퇴했다.’는 이야기가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면면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할머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기록이 없다면 밥할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에서 권을 장군이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산을 털어 가아에 허덕이는 이웃들

을 구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다룰 수만은 없는 ‘밥할머니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밥할머니에게는 김덕령, 광재우 의병장과 같은 불굴의 의기가 있으며, 경주 최부자와 같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분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면 조선시대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 여성위인입니다. 신사임당이나 논개를 뛰어넘는 훌륭한 생애를 가진 분에게 밥할머니의 ‘참여와 나눔’이라는 시대정신은 앞으로 영구불변한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로써 밥할머니의 존재가 우리 마을을 넘어서 고양시, 그리고 전국지방 곳곳,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밥할머니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 1월 27일 벽제관 전투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양성 전투의 승리에 심취한 조명연합군은 선봉리 벽제관 부근 숯돌고개까지 진격하다가 이곳에 매복해 있던 왜군에게 참패를 당했고, 북한산으로 피신한 우리 군사들을 밥할머니가 계락을 꾸며 구출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밥할머니의 지혜로 노적봉에 벼 짚단을 쌓고, 창릉천에 헛가

루 뿌려 왜군을 기만하고, 급기야 석화물을 마신 왜군들이 배탈이 나 ‘멀리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430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벽제관 전투가 끝난 뒤 2주 후에 있었던 행주대첩 당시에는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자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 우리 병사들이 왜군을 격퇴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 전장에서의 활약에 대한 내용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즉 밥할머니 노년기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인조 임금이 반정을 할 때 밥할머니의 나이는 대략 80세쯤이었습니다. 벽제관 전투 때가 50세였으니 전란이후 30년 간 펼쳐진 밥할머니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은 밥할머니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인조의 반정군이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연서역에 집결했을 때 아들 문천립을 시켜 군량미를 내어 도왔고, 의주대로 상에 있는 신원동 공동천 위에 다리를 놓을 때 아들 문천립이 기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밥할머니께서는 마을의 절에 많은 시주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명교 비문에는 이 비의 건립자인 이한과 당시 고양군수인 통정대부 유후성, 그리고 정헌대부 윤면지의 이름이 있고, 이상식 홍시우를 대표로 한 76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할머니의 아들인 문천립의 이름도 비문에 있고, 남평 문씨 집안의 문명승(文命承), 문오정개(文應丁介), 문유화(文劉化) 등의 이름도 올려져 있습니다. 개천에 다리를 놓는 일도 비용도 많이 들고 보통의 율력 가지고는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감수하고 살았을 텐데, 공동천에 다리를 놓을 때 밥할머니의 아들을 비롯해 남평문씨 집안에서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남평문씨 집안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밥할머니의 존재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의 이야기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의 극적 요소가 워낙 강하다보니 다른 행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밥할머니의 이야기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베푸는 것에 인색하니 이를 부각시키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왜 밥할머니라 부르게 된 것일까요?”

밥할머니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 고석할머니, 고숙할머니, 밥보시할머니, 떡장수할머니 등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석할머니는 오래된 돌(古石)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밥한머니, 박할머니라는 명칭도 나타납니다.

밥다의 '밥'자, '위대하다'라는 내용의 '한'자를 섞어 '밥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의 '밥한머니'에서 밥할머니가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밥할머니의 위력을 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북한산 지역에서 밥할머니를 동신(洞神)으로 모시는 분들과 단군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밥할머니는 밥한머니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밥'은 어딘지 평범하고 세속적으로 비취질 수 있기에 밥할머니가 아닌 밥한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밥할머니는 '박씨 할머니'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은평구 쪽에서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밀양박씨 분들이 그러는 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밥할머니의 본관이 '해주오씨냐, 밀양박씨냐?'라는 논란을 야기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밥할머니'는 일종의 애칭(愛稱)으로 받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무엇보다 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밥은 결코 평범하거나 세속적이기 보다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밥할머니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존경하는 의미로 밥할머니라는 애칭을 만들었고, 이것이 400여 년 동안 면면히 전해져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밥할머니의 나이가 49세였으니 아무리 수명이 짧았던 옛날이라지만 '한

머니' 소리를 듣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터에서 밥을 지어줘 밥할머니가 되었다'는 주장은 어딘지 어설픈 보입니다. 을지문덕, 김유신, 이순신 장군 등이 활약한 수많은 전쟁에서 밥을 지워준 여성들은 무수히 많았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도탄에 빠진 이웃들에게 밥을 제공해 밥할머니로 불리었다'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을 구휼하고자 팔 걷고 나선 밥할머니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할머니는 과연 여성의병대를 조직해 행주대첩에 참여했을까요?”

행주산성 대첩문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권율 장군의 동상입니다. 동상 뒤쪽에 행주대첩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부조로 만들어진 작품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부조 작품을 보면 민관군이 협력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주치마를 입고 돌을 나르는 여성들의 모습도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할머니께서 '여성의병대'를 조직해 행주대첩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주산성 성역화는 1960년대에 시작해 1980년 중반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71년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고 문화공보부에서 제공한 12분 분량의 대한대뉴스 동영상에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대첩과 행주치마 여성의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돌을 나르던 앞치마는 그 이후부터 행주치마라 일컬어오거니와 한국여인의 슬기로운 얼이 담긴 상징이 되었다'며 앞치마 이야기를 비중 있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이 밥할머니가 조직한 여성의병들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퇴해 북한산으로 피해 들어간 조선군과 명나라 군을 밥할머니가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만큼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일어난 '행주산성 전투'에도 밥할머니를 비롯한 여성의병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벽제관 전투와 행주대첩이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고, 밥할머니의 지혜와 용기, 호국정신이 충만했을 것으로 본다면 행주대첩 당시에 밥할머니께서 여성의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주장 또한 일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자랑스러운 역사현장에 밥할머니를 비롯한 여성의병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추적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밥할머니는 실존 인물인가요?”

밥할머니를 설화 속 인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밥할머니에 대해 확인된 역사기록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존재가 역사 기록에 그 이름을 남기는 경우는 무척 드문 일입니다. 고구려의 소서노, 백제의 한주(고구려 안장왕의 부인이 된 여인), 신라의 선덕여왕(김덕만), 조선의 허난설헌(허초희) 등은 역사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지만, 고려의 천추태후, 기황후, 조선의 신사임당, 만덕, 황진이, 논개, 장씨부인 등 내로라하는 여성들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출세한 남편이나 아들을 둔 경우에도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본관(本貫)만 남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니까요. 밥할머니 역시 남평문씨 가문에 시집을 온 '해주오씨'라는 신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몹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밥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밥할머니를 설화적 존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여성특별시 고양-HERSTORY10'사업을 통해 밥할머니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이 없더라도 밥할머니 이야기가 북한산과 창동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고양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노적봉

밥할머니'라는 글과 악보가 실려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로 왜군을 물리친 위대한 밥할머니...'로 시작되는 동요입니다.

'밥할머니의 공적을 후세에 알리려 석상을 세워 기리었죠'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고양문화원에서는 밥할머니 인형극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밥할머니를 '오 여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밥할머니 이야기는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 인물 콘텐츠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심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 소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할머니의 존재를 역사적 기록 유무로만 재단하는 것은 밥할머니의 생애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정치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고양시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역사야래 불상이라는 점과 조선 후기 고양과 서울 은평 지역에 실존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6년에 밥할머니 석상을 향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비석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위정자의 자기중심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밥할머니 이야기의 경우는 40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구전만큼 중요한 역사 자료가 없다 하겠습니다. 구전의 위력은 그만큼 밥할머니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을 지녔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거짓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할머니의 석상은 누가 어떻게 세웠을까요?”

『고양군지』에는 <동산리의 고숙할머니·고숙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려 있고, 이어서 <북한리의 노적봉과 밥할머니> 이야기를 연달아 실려 있습니다. <동산리의 고숙할머니·고숙할아버지>라는 글 속에는 밥할머니의 활약과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아쉽게도 그 명칭이 '고숙할머니와 고숙할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조정에서 이 두 사람의 공적을 기려 동산동 농모퉁이에 비석을 세워주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말에 조선에 들어온 일인들이 비석의 갯머리를 뜯어 부셨기 때문에 한동안 비석의 머리가 없었으나 근자에 새로 만들어 얹었다는 서술도 있습니다.

『고양군지』에는 〈북한리의 노적봉과 밥할머니〉 글에는 누가 세웠다는 내용 없이 '갈기에는 머리 없는 지장보살의 석상이 있으며 이 고장사람들은 그것을 밥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석상이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한 슬기로운 노파의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 2013년에 평화의 도시, 고양 600년 기념특별전 '신화와 전설-읽어버린 세계로의 여행'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창릉동-북한산 정경부인 오씨(밥할머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노적봉이 잘 보이는 창릉 모퉁이에 그녀를 기리는 석상을 세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석상을 선조 때 세웠다는 근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석상이 인조 때 세워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밥할머니의 공적은 선조 때도 크지만 인조 때에도 큼니다. 2021년 추석명절에 KBS 2TV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전설의 배우들'에서 '인조 때 밥할머니 석상이 만들어졌는데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밥할머니의 사망연도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여든 살까지 사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석상은 밥할머니 사후인 인조 때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밥할머니 이야기 중에는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밥할머니 생애 연구를 통한 밥할머니 역사의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밥할머니 생애 연구를 통한 밥할머니 역사 객관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밥할머니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도 많이 정리될 것 같아 사뭇 기대가 큼니다.



“밥할머니는 왜 약사여래불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021년 5월 4일 KBS ITV 열린채널에서 밥할머니 이야기가 방영될 정도로 밥할머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열린채널에서 만든 밥할머니 이야기는 그 동안 온라인상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1992년 KBS

TV에서도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 특별 프로그램에서도 밥할머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밥할머니께서 햇불을 들고 적을 교란하고, 전투를 하는 군인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장면, 부상병을 치료하는 모습,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지역에서 무속의 신앙으로 모셔지는 내용 등이 방영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은 최영 장군, 계백 장군, 관우 장군, 임경업 장군 등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밥할머니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북한산 지역에서 동신(洞神)으로 모셔지는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밥할머니 석상이 마루불이라는 설이 있었다가 요즈음은 약사여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의 몸통은 약사여래의 수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밥할머니 석상을 보면 오른손은 들고 있고 왼손에는 구슬 같은 무언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사무와인(施無畏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왼손은 약함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아래 부분은 훼손되어 정확한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도 합니다.

약사여래는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열두 가지 대원(大願)을 세웠는데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기원들이 담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가지 큰 바램 중에는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 일체중생의 기갈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가난해 의복이 없는 아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원' 등이 있습니다. 이 열두 개의 대원(大願) 중에서 세 가지 대원이 마음을 이깁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여인으로 태어난 밥할머니는 여성이었기에 세상에 나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아마도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즉, 밥할머니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더 큰일을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을 법한 것입니다. 물론, 여성임에도 굴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중생의 삶을 돌보는 일을 하신 것이 밥할머니 석상을 약사여래의 형상으로 세운 까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출했던 일도 한 몫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살리셨기에 마을의 신으로 추앙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 보면 사람이 신으로 추앙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이 있습니다. 고려 말 왜구의 침탈로 고통 받았던 백성들에게 최영 장군은 신적인 존재였고, 조선을 개국한 세력들에 밀려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최영 장군은 신적인

존재로 전국에서 모셔지게 됩니다. 최영 장군 외에도 단군, 김유신, 장보고, 공민왕, 단종, 이성계, 신성경, 남이, 임경업 등 역사적 인물하면서도 신으로 모셔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신 장보고, 해신 임경업이란 말이 있듯이 남해안과 서해안 어부들이 왜구나 중국 배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으로 모셔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외에도 영동할머니, 개양할머니, 마고할머니, 설문대할머니, 돈지할머니, 다자구할머니, 목축신 등 마을주민들이 모시는 신은 정말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할머니가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으로 추앙되는 것도 밥할머니의 위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밥할머니가 죽음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밥할머니 석상의 머리 부분은 왜 잘렸을까요?”

아시다시피 밥할머니의 석상은 머리 부분이 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을 괴롭힌 밥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훼손했다고 합니다. 망치로 부숴냈다고도 하고, 일본칼로 잘랐다고도 합니다. 한편 송유억불 정책을 취했던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대에도 광신적인 타 종교인들이 불상이나 단군상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밥할머니 석상의 머리 부분은 일본인들이 훼손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밥할머니 석상의 머리를 훼손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혹시 모를 저항의 싹을 자르고자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정기를 끊고자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잖습니까.

밥할머니 석상이 갖는 사회 문화적 가치

밥할머니 공원에는 밥할머니 석상과 함께 동산동 비석군이 있습니다. 이 석상과 비석들은 모두 2006년 11월에 향토문화재 제46호, 제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시 훼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밥할머니 석상은 머리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는데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심사평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유일한 약사여래 불상이라는 점과 오래 전부터 지역민들이 민속적으로 모시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 실존한 인물이라는 점과 동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누대에 걸쳐 밥할머니께 제사를 지내왔다는 점 등이 문화재 지정 근거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할머니 석상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가치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밥할머니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시대정신을 남겨주셨습니다. 밥할머니를 상징하는 석상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밥할머니 석상 옆에 고양 덕수자씨교비명과 오정일 공덕비, 고양군수 엄찬 선정비가 있습니다.

밥할머니 석상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비석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덕수자씨교비명은 조선 현종 때 제작된 덕수교 다리와 관련된 1,000여 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당시 관찰사였던 오정일 경기관찰사의 공덕비와 고양군수 엄찬의 공덕비의 비문을 보면 조선시대 우리 지역의 역사도 알 수가 있고, 주민들의 이름, 지형과 교통로, 기부문화 등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밥할머니는 해주오씨가 맞는가요?”

매년 추향제 종현관을 해주오씨 후손이 맡아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주오씨 대종회에서 많은 분이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밥할머니의 본관이 해주오씨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밥할머니는 밀양박씨라는 주장이 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밥할머니의 성씨가 해주오씨인지 밀양박씨인지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은평문화원 홈페이지에는 밀양박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평문화원 홈페이지에는 '1544년 불광산계에 있는 명문거족의 하나인 밀양박씨 집안에서 출생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는 49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에서 밥할머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김정권 선생이 '고양 밥할머니 행적을 통한 실체와 향후 연구 발전 방안-밥할머니의 주먹밥은 얼마짜리인가?'를 발표했는데, 김정권 선생은 '고양밥할머니 학술세미나'에서 밥할머니는 밀양박씨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정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은평구 설화·민요에는 '밥할머니는 불광리, 즉 연신내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산 밑 마을(지금의 수양관 아래쪽 마을) 부근에서 대대로 집성촌으로 살아온 해주오씨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 마지막에 밥할머니의 성씨에 대한 이문이 많으며 해주오씨 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상진 향토사학자의 주장을 신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향토사학자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전문위원이며, 본관은 밀양박씨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작위적인 주장이 밥할머니의 성씨를 흔들리게 하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2017년 고양일보 기사에는 해주오씨 할머니라고 되어 있고 2018년 은평문화원에서 출간한 『은평구의 무속신앙과 설화』에는 이 글에서는 은평문화원의 기존 주장대로 1544년 불광산계에 있는 토호 집안이자 명문가인 밀양박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20세가 되자 이웃 마을의 만석지기 토호이자 명문거족인 남평문씨 집안의 문옥형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와 은평구가 밥할머니에 대해 경쟁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해주오씨인지 밀양박씨인지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을 읽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고양문화원과 은평문화원에 올라온 글들을 검증 과정 없이 복사하고, 증빙자료 없이 사건을 덧붙이고, 이러한 글에 또 누군가가 그럴 듯하게 자신의 생각을 보태가며 사뭇 다른 밥할머니 이야기를 재생산하며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할머니의 성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글들은 큰 관심이나 조사가 있었기 보다는 참고한 자료에 따라 해주오씨라고 하거나 밀양박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양사에서 제작한 밥할머니 알뜰판 등에 해주오씨라고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양밥할머니 보존위원회에서도 해주오씨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밥할머니보존위원회를 만들고 이끌어 오셨던 김형만 고문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고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김형만 고문의 고모님께서 1920년대에 불광동 해주오씨 덕으로 출가하셨고, 고모님 댁에 세배를 갈 때 마다 고모님은 어린 김형만에게 밥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밥할머니는 해주오씨라고 들려주었다 합니다.

실제로 해주오씨 가문에서는 대대로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오씨 종친회 회장의 어머니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해주오씨 8대손 며느리인 김정례 어르신은 "오씨 네는 다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라며 고리짝에 담긴 필묵과 다락에 모셔놓은 쌀 항아리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매일 밥할머니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003년에 인쇄된 6판 『재미있는 은평이야기』에는 '밥할머니의 사당(진관외동 186)이 부근에 있었는데 현재 폐당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할머니의 후손인 오성구가 근처에 살고 있다'라고 적시합니다. 이러한 내용 등등으로 미루어 밥할머니의 성씨는 해주오씨라는 주장이 보편화 되었다고 봅니다.

밥할머니의 성씨가 흔들린 데에는 족보에 기록이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남평문씨, 해주오씨, 그리고 밀양박씨 족보에 밥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이씨 족보에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조가 밥할머니 남편 문옥형과 아들 문천립에게 전주이씨 본관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옥형과 문천립이 아닌 이옥형과 이

천립이 되는 셈입니다.

전주이씨가 왕기였기에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남평문씨 입장에서는 파문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전주이씨 입장에서 도무지 마뜩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전주이씨로의 전환과정이 각 문중 간의 양금으로 남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성씨가 바뀌는 과정에서 밥할머니의 역할이 크게 존재했다면 남평문씨나 전주이씨 문중에서 밥할머니에 대한 반감 또한 상당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씨가 흔들린 까닭은 전주이씨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 어르신들의 고증과 해주오씨 후손들이 밥할머니의 신주단지과 필묵을 모시고 있는 점, 해주오씨 대종회에서 후손들이 꾸준히 고양 밥할머니 추향제에 참여해 예를 올리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해주오씨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밥할머니의 본관이 해주오씨로 정리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만시지탄이지만 밥할머니 역사의 객관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표준화된 자료를 생산한다면 지금 존재하는 혼선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밥할머니는 어떻게 정경부인이 되었을까요?”

다행히 밥할머니가 정경부인이 되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정경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 즉 관리임명에 따라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정경부인은 정일품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아내와 종일품인 숭록대부(崇祿大夫)·승정대부(崇政大夫)의 아내에게 주어졌다



고 합니다. 문무관의 차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던 지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밥할머니의 남편인 문옥형은 정일품이나 종일품의 품계까지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밥할머니의 아들인 문천립의 공을 잊지 못해 그에게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位階)를 내리고, 불광동(佛光洞)에 3일 간의 땅을 하사했고, 성과 본관을 완산(完山), 즉 종실(宗室)인 전주이씨(全州李氏)로 바꾸게 했다는 내용이 『남평문씨 충양공파보(南平文氏忠襄公派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밥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인조 임금은 밥할머니 남편인 문옥형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를 내리고, 밥할머니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을 봉했다고 합니다.



행주치마와 행주산성과의 연관성

행주대첩 당시 여성의병들이 돌을 나를 때 사용했던 앞치마여서 오랫동안 행주치마라고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행주치마가 행주대첩과 상관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행주치마'를 검색하면 <행주치마는 '행주대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행주대첩보다 몇 십 년 앞서는 『사성통해(四聲通解)』(1527)라는 책에 나오는 것

으로 미루어 보아, '행주치마'를 행주대첩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은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주치마는 행주대첩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렇다고 행주대첩 당시 행주치마가 사용되었다는 스토리까지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주치마가 행주대첩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병들이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을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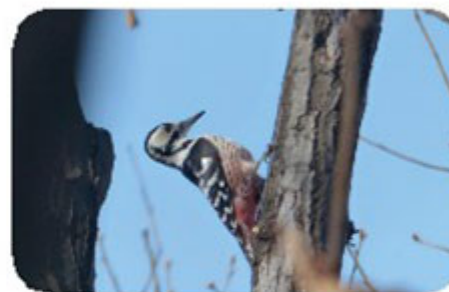
사실 밥할머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행주치마의 전설' 하면 금방 밥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행주대첩에서 여인네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 왜군을 무찌르는데 힘을 보탰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밥할머니는 어떠한 생을 사셨을까요?”

사실 임진왜란 때 밥할머니의 활약상은 나름대로 널리 알려 진데 반해 밥할머니 노년의 삶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진왜란 때의 활약이 워낙 극적이다 보니 주로 벽제관 전투에서의 무용담, 행주대첩의 때 전투신만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 밥할머니의 삶 또한 극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밥할머니보존회에서는 임진왜란 때의 활동을 '참여'라는 부분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 후의 활동을 '나눔'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밥할머니공원 표지석 뒷면에도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밥할머니에 관해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 도탄에 빠진 주민들을 구휼했다는 기록은 사실상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절에 많은 시주를 했다 하니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밥할머니께서 어떻게 구휼 활동을 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0여 년 동안 면면히 전해져 온 밥할머니라는 애칭이 밥할머니의 노년의 삶을 잘 표현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밥할머니로부터 밥과 곡식을 지원받아 굶주림을 해결한 백성들이 그 고마움에 '밥을 준 할머니'로 불렀고, 그것이 400여 년 동안 밥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면면히 전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 즉, 밥할머니의 노년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밥할머니께서 절에 많은 시주를 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면 절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도우려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임금은 밥할머니의 공덕을 후세에 알리려 석상을 세웠고, 밥할머니의 석상은 불상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서 절이라는 조직과 연동해서 배고픈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보살과도 같은 밥할머니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면면히 자리하고 있기에 발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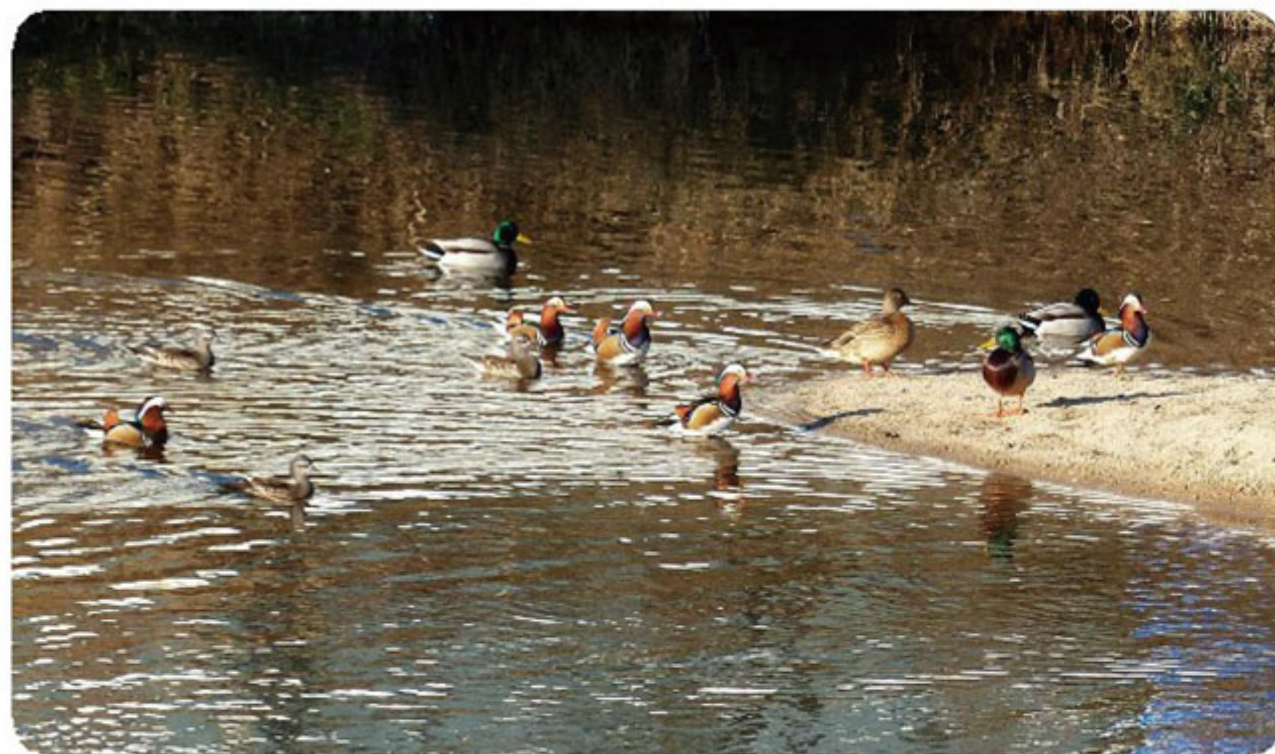
영봉산 오색딱따구리



창릉천 백로의 잉어 사냥



창릉천 꿩



창릉천 원앙 무리



덕수공원 딱새의 벌레 사냥



세솔다리 제비 가족



샛말천 오목눈이새



박용무(朴用武) 사진작가

창릉동 거주, 1946년생, 전 후지포토사진클럽 회장, 현 명동·율지로 사진교실 지도교수